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43 주차 (18:28~19:15)

(2015년 11월 15일 - 2015년 11월 21일)

(제3권 43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43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1 월 1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8:28~32)

28.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30.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1.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32.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28절)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파스로부터 데리고 관저로 이끌고 갔습니다
(Ἀγούσιν οὖν τὸν Ἰησοῦν ἀπὸ τοῦ Καιάβα εἰς τὸ πρατώριον·)
새벽이였습니다 (ἦν δὲ πρωΐ·)
그들이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디다 (καὶ αὐτοὶ οὐκ εἰσῆλθον εἰς τὸ πρατώριον.)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을 먹고자 했습니다 (ἵνα μὴ μιανθῶσιν ἀλλὰ φάγωσιν τὸ πάσχα.)
- (29절) 그러자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확인했습니다
(ἔξῆλθεν οὖν ὁ Πιλάτος ἔξω πρὸς αὐτοὺς καὶ φησίν·)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떤 고소할 것을 가져왔느냐?
(τίνα κατηγορίαν φέρετε [κατὰ] τοῦ ἀνθρώπου τούτου;)
- (30절) 그들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ῶ·)
만약 그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εἰ μὴ ἦν οὗτος κακὸν ποιῶν, οὐκ ἂν σοι παρεδώκαμεν αὐτόν.)
- (31절)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αὐτοῖς ὁ Πιλάτος·)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에 따라 그를 심판하라
(λάβετε αὐτὸν ὑμεῖς καὶ κατὰ τὸν νόμον ὑμῶν κρίνατε αὐτόν.)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αὐτῶ οἱ Ἰουδαῖοι·)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ἡμῖν οὐκ ἔξεστιν ἀποκτεῖναι οὐδένα·)
- (32절)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 함이라 (ἵνα ὁ λόγος τοῦ Ἰησοῦ πληρωθῆι)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ὃν εἶπεν σημαίνων ποίῳ θανάτῳ ἡμελλεν ἀποθνήσκει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8 절을 읽으십시오. 안나스에게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끌려 갔던 예수님은 이 내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 갑니다. 다른 공판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안 가야바에게

의해 심한 고통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만 요한은 철저하게 가이아파스가 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오히려 빌라도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당시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AD. 26년에 티베리수스 황제에 의해 임명되어 36년까지 11년간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매우 잔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유대인 총독을 거치면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 주는 편을 택했고, 그러한 그의 입장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로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매주 반복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 갔을 때는 새벽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 닭이 울었다는 사실로 추정해 볼 때 동트기 직전이었으리라 추정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은 밤을 꼬박 지새운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앞둔 아침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있는 관저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다. 그 이유는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을 지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과 속에 대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크게 두개의 범주로 형성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거룩함, 성스러움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의로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거룩함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 것은 사람, 동식물, 음식, 시간, 장소, 사람의 질병 등등이었습니다. 이들이 관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거룩함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들이 그 관저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체사장을 곁에서 보좌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유월절 성전에서 행할 행사를 생각하면, 부정한 곳이라 인식되는 빌라도의 관저를 밟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더럽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한 것은 당연합니다.

29-30 절을 읽으십시오. 이러한 유대 풍습을 잘 알고 있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의해 끌려 온 예수님을 보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고소할 것을 가져왔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그들이 한 대답을 보면 그 밤에 그토록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한 이유치고는 너무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함께 했고, 그 밤에 그 많은 군대가 동원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체포되어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새벽녘까지 예수님이 잡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때문에 빌라도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체포해 오는 것을 허락했으니 그에 합당한 죄목도 그들이 갖고 와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성모독과 같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해 오게 되면 당시 각 식민지의 종교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던 로마 제국의 정책에 비추어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빌라도의 질문은 ‘로마 제국이 취급할 수 있는 사안을 만들어 왔느냐?’라는 질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온 유대인들의 대답은 너무도 추상적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구체적인 어떤 것이 없이 그냥 ‘악을 행한 사람’(κακὸν ποιῶν, 카콘 포이온)이라고 말합니다. 편하게 해석하면 그냥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나쁜 사람이니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

게 대답한 것은 유대인들이 종교 문제를 부각할 경우 빌라도가 발을 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직접 이 문제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 되면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예수를 제거하는 일이 그들에겐 너무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의 고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을 유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협력한 빌라도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 됩니다.

31-32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지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죄목을 제시하지 못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는 누군가를 사형시킬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대화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마땅한 죄목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하는지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 나아가 예수님 스스로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미 계획된 일이며,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새 그 일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3 번에 걸쳐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은 니고데모 앞에서, 다른 한 번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들려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요 8:28).

“6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요 12:31-33).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죽으시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로마에 반역을 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방법을 유대인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참고, 마 20:18-19).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죽으셔야 했으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당시 ‘세상’으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공조로 죽으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만 말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참 의미에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함께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기로 하신 것이지요. 문제는 제물되신 예수님을 누가 죽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커다란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가장 간절히 원할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지위나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보다 더 중차대한 이유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를 위시한 로마 제국의 군대는 우리를 대신해 그 일을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그 길을 택하신 것이고, 염치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누구의 생각으로 말하는가?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8:33~40)

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라 내 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 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원문해석하기

- (33절)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Εἰσήλθεν οὖν πάλιν εἰς τὸ προαίτιον ὁ Πιλάτος) 그리고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ἐρώνησεν τὸν Ἰησοῦν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냐? (σὺ εἶ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 (34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이것이 당신 스스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 당신에게 한 말입니까? (ἀπὸ σεαυτοῦ σὺ τοῦτο λέγεις ἢ ἄλλοι εἶπόν σοι περὶ ἐμοῦ·)
- (35절)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ὁ Πιλάτος·) 내가 유대인이냐? (μήτι ἐγὼ Ἰουδαῖός εἰμι·) 당신의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다 (τὸ ἔθνος τὸ σὸν καὶ οἱ ἀρχιερεῖς παρέδωκάν σε ἐμοί·)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 (τί ἐποίησας·)
- (36절)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ἡ βασιλεία ἡ ἐμὴ οὐκ ἔστιν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만약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εἰ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ἦν ἡ βασιλεία ἡ ἐμὴ·) 나의 아랫사람들이 싸웠을 겁니다 (οἱ ὑπηρέται οἱ ἐμοὶ ἠγωνίζοντο [ἀν])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ἵνα μὴ παραδοθῶ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그러나 지금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νῦν δὲ ἡ βασιλεία ἡ ἐμὴ οὐκ ἔστιν ἐντεῦθεν·)

- (37절)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εἶπεν οὖν αὐτῷ ὁ Πιλάτος·)
 그래서 당신이 왕이라는 말이냐?(οὐκοῦν βασιλεὺς εἶ σύ·)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ἀπεκρίθη ὁ Ἰησοῦς·)
 당신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σὺ λέγεις ὅτι βασιλεὺς εἰμι·)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ἐγὼ εἰς τοῦτο γεγέννημαι καὶ εἰς τοῦτο ἐλήλυθ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그 결과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ἵνα μαρτυρήσω τῇ ἀληθείᾳ·)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소리를 듣습니다(πᾶς ὁ ὢν ἐκ τῆς ἀληθείας ἀκούει μου τῆς φωνῆς·)
- (38절)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ὁ Πιλάτος·)
 진리가 무엇이냐?(τί ἐστιν ἀλήθεια·)
 이 말을 한 후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습니다(Καὶ τοῦτο εἰπὼν πάλιν ἐξῆλθεν πρὸς τοὺς Ἰουδαίους)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ἐγὼ οὐδεμίαν εὕρισκω ἐν αὐτῷ αἰτίαν·)
- (39절) 그러나 너희에게 관례가 있다(ἔστιν δὲ συνήθεια ὑμῶν)
 유월절에 너희에게 한명을 석방하도록 하는(ἵνα ἓνα ἀπολύσω ὑμῖν ἐν τῷ πάσχα·)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βούλεσθε οὖν ἀπολύσω ὑμῖν τὸν βασιλέα τῶν Ἰουδαίων·)
- (40절) 그런데 그들이 말하여 외쳤습니다(ἐκραύγασαν οὖν πάλιν λέγοντες·)
 그는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μὴ τοῦτον ἀλλὰ τὸν Βαραββᾶν·)
 그런데 바라바는 혁명가(강도)였습니다(ἦν δὲ ὁ Βαραββᾶς ληστή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3 절을 읽으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해 유대인들에게 갔다가 헛걸음
 질하고 다시 관저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관저 밖에 모
 여 있었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으니 이래저래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
 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냐?” 어찌 보
 면 매우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사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갈등한 것은 왕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의
 종교 정책에 대해 매우 관대했습니다. 정치는 통합하되 종교는 각자 믿는 것을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사형시키고자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종교적인 문제로 로마 총
 독에게 예수님을 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로마 총독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이슈
 를 제기한 것이지요.

34 절을 읽으십시오. 빌라도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당신 스스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게 대해 당신에게 한 말입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질문은 이것이 빌라도 혼자만의 생각인지 또는 그 동안의 수사를 거쳐 빌라도가 확정적인 증거를 갖고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빌라도 스스로가 내린 판단인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빌라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의미를 이렇게만 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땅의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명의 회의자주의의 고백을 1장과 20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dana엘 (1장)과 도마(20장)의 고백입니다. 두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요1:49).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요20:28).

나dana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나dana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 도마는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이자 우주의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임금, 주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왕이시요 통치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된 단어라면, 주님 또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통치권자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가는 곳마다 종교적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 전체로서는 기독교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서로의 신을 인정하는 반면 기독교만 유일신을 강조하고 다른 종교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신교 사회였던 그리스-로마 사회는 기독교의 이러한 가르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의해 고발 당했을 때 고발 대리인으로 나섰던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행 24:5).

사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넘어 갔습니다. 물론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계율을 지켜야 했지요. 다시 말해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표면상으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할례를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당연히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 갈등이 당시 유대 땅에 국한하지 않고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고, 그 때문에 로마 제국도 그러한 갈등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을 잇는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이 극도로 팽배했었습니다. 특히 도미시안 황제 (A.D. 81~96)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고, 기독교인들은 이같은 요구에 끝까지 불응했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쉽게 그리고 자주 부르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나중에 서머나 교회의 목자였던 폴리갑은 자신을 죽이기 전에 로마의 재판관이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자 86년간 단 한번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고 로마의 황제를 유일한 주권자로 고백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지금 그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 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 해봤자 기껏해야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어떠한 박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목숨과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믿는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한 질문—“이것이 당신 스스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 당신에게 한 말입니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일 뿐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내 스스로가 하는 말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8:33~40)

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원문해석하기

- (33절)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Εἰσηλθεν οὖν πάλιν εἰς τὸ προαίτιον ὁ Πιλάτος) 그리고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ἐρώνησεν τὸν Ἰησοῦν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냐? (σὺ εἶ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 (34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이것이 당신 스스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게 대해 당신에게 한 말입니까? (ἀπὸ σεαυτοῦ σὺ τοῦτο λέγεις ἢ ἄλλοι εἶπόν σοι περὶ ἐμοῦ·)
- (35절)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ὁ Πιλάτος·) 내가 유대인이냐? (μήτι ἐγὼ Ἰουδαῖός εἰμι·) 당신의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다 (τὸ ἔθνος τὸ σὸν καὶ οἱ ἀρχιερεῖς παρέδωκάν σε ἐμοί·)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 (τί ἐποίησας·)
- (36절)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ἡ βασιλεία ἡ ἐμὴ οὐκ ἔστιν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만약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εἰ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ἦν ἡ βασιλεία ἡ ἐμὴ·) 나의 아랫사람들이 싸웠을 겁니다 (οἱ ὑπηρέται οἱ ἐμοὶ ἠγωνίζοντο [ἀν])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ἵνα μὴ παραδοθῶ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그러나 지금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νῦν δὲ ἡ βασιλεία ἡ ἐμὴ οὐκ ἔστιν ἐντεῦθεν·)

- (37절)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εἶπεν οὖν αὐτῷ ὁ Πιλάτος·)
 그래서 당신이 왕이라는 말이냐?(οὐκοῦν βασιλεὺς εἶ σύ·)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ἀπεκρίθη ὁ Ἰησοῦς·)
 당신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σὺ λέγεις ὅτι βασιλεὺς εἰμι·)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ἐγὼ εἰς τοῦτο γεγέννημαι καὶ εἰς τοῦτο ἐλήλυθ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그 결과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ἵνα μαρτυρήσω τῇ ἀληθείᾳ·)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소리를 듣습니다(πᾶς ὁ ὢν ἐκ τῆς ἀληθείας ἀκούει μου τῆς φωνῆς·)
- (38절)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ὁ Πιλάτος·)
 진리가 무엇이냐?(τί ἐστιν ἀλήθεια·)
 이 말을 한 후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습니다(Καὶ τοῦτο εἰπὼν πάλιν ἐξῆλθεν πρὸς τοὺς Ἰουδαίους)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ἐγὼ οὐδεμίαν εὕρισκω ἐν αὐτῷ αἰτίαν·)
- (39절) 그러나 너희에게 관례가 있다(ἔστιν δὲ συνήθεια ὑμῖν)
 유월절에 너희에게 한명을 석방하도록 하는(ἵνα ἓνα ἀπολύσω ὑμῖν ἐν τῷ πάσχα·)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βούλεσθε οὖν ἀπολύσω ὑμῖν τὸν βασιλέα τῶν Ἰουδαίων·)
- (40절) 그런데 그들이 말하여 외쳤습니다(ἐκραύγασαν οὖν πάλιν λέγοντες·)
 그는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μὴ τοῦτον ἀλλὰ τὸν Βαραββᾶν·)
 그런데 바라바는 혁명가(강도)였습니다(ἦν δὲ ὁ Βαραββᾶς ληστή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5 절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것이 당신 스스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게 당신에게 한 말입니까?”라고 되물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당신의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다.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과 함께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빌라도가 이미 유대인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잡아 넘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되물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강한 어조로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관할 식민지에서 그곳의 통치자로 등극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잡혀왔으니 당연히 그런 질문을 했고, 그런 자신의 질문을 예수님이 되받아 질문하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대화에서 요한은 ‘왕’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대화에 나타납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좀 더 살펴보고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 요한이 어떤 것을 부각시키려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당신의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다. 당신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독립 운동의 주체로 내세워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반역한 죄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로마총독에게까지 데리고 올 정도면 단순히 악한 행위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랬기에 죽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빌라도의 입장에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독립 운동을 하고자 모의한 자로 추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만의 나라를 건설하려 했다는 거지요. 결국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실제로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결국 빌라도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야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36절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디다. 만약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나의 아랫사람들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 오신 이유는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을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내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구원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빌라도 앞에서 계시는 것이지요.

37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에 빌라도는 재차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라는 말이나?” 여기에서 빌라도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그냥 ‘왕’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왕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를 위해 낳고, 이를 위해 세상에 들어 와서 진리에 대해 증거하였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37절의 대화 내용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공관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대동소이하므로 마태복음 기록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¹¹ 예수께서 총독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¹²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¹³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¹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마 27:11-14).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는 ‘네가 말했다’(ὁμολόγησ) 수 례게이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동의한 것이지요. 하지만 요한

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는 대답 대신 빌라도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고소 내용이 그런 것인지를 묻다가 그냥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에 “당신이 내가 왕이라고 말했다”라고 대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이지요. 오히려 ‘왕’이라는 말에 대하여 ‘진리’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추가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며 그것을 위해 났고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후 “그 결과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왕’과 ‘진리’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서만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한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영화에만 연연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말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아! 바라바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8:33~40)

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38.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원문해석하기

- (33절)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Εἰσηλθεν οὖν πάλιν εἰς τὸ προαίτιον ὁ Πιλάτος) 그리고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ἐρώνησεν τὸν Ἰησοῦν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냐? (σὺ εἶ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 (34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이것이 당신 스스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게 대해 당신에게 한 말입니까? (ἀπὸ σεαυτοῦ σὺ τοῦτο λέγεις ἢ ἄλλοι εἶπόν σοι περὶ ἐμοῦ·)
- (35절)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ὁ Πιλάτος·) 내가 유대인이냐? (μήτι ἐγὼ Ἰουδαῖός εἰμι·) 당신의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다 (τὸ ἔθνος τὸ σὸν καὶ οἱ ἀρχιερεῖς παρέδωκάν σε ἐμοί·)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 (τί ἐποίησας·)
- (36절)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ἡ βασιλεία ἡ ἐμὴ οὐκ ἔστιν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만약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εἰ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ἦν ἡ βασιλεία ἡ ἐμὴ·) 나의 아랫사람들이 싸웠을 겁니다 (οἱ ὑπηρέται οἱ ἐμοὶ ἠγωνίζοντο [ἀν])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ἵνα μὴ παραδοθῶ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그러나 지금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νῦν δὲ ἡ βασιλεία ἡ ἐμὴ οὐκ ἔστιν ἐντεῦθεν·)

- (37절)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εἶπεν οὖν αὐτῷ ὁ Πιλάτος·)
 그래서 당신이 왕이라는 말이냐?(οὐκοῦν βασιλεὺς εἶ σύ·)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ἀπεκρίθη ὁ Ἰησοῦς·)
 당신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σὺ λέγεις ὅτι βασιλεὺς εἰμι·)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ἐγὼ εἰς τοῦτο γεγέννημαι καὶ εἰς τοῦτο ἐλήλυθ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그 결과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ἵνα μαρτυρήσω τῇ ἀληθείᾳ·)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소리를 듣습니다(πᾶς ὁ ὢν ἐκ τῆς ἀληθείας ἀκούει μου τῆς φωνῆς·)
- (38절)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ὁ Πιλάτος·)
 진리가 무엇이나?(τί ἐστιν ἀλήθεια·)
 이 말을 한 후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습니다(Καὶ τοῦτο εἰπὼν πάλιν ἐξῆλθεν πρὸς τοὺς Ἰουδαίους)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ἐγὼ οὐδεμίαν εὕρισκω ἐν αὐτῷ αἰτίαν·)
- (39절) 그러나 너희에게 관례가 있다(ἔστιν δὲ συνήθεια ὑμῖν)
 유월절에 너희에게 한 명을 석방하도록 하는(ἵνα ἓνα ἀπολύσω ὑμῖν ἐν τῷ πάσχα·)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βούλεσθε οὖν ἀπολύσω ὑμῖν τὸν βασιλέα τῶν Ἰουδαίων·)
- (40절) 그런데 그들이 말하여 외쳤습니다(ἐκραύησαν οὖν πάλιν λέγοντες·)
 그는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μὴ τοῦτον ἀλλὰ τὸν Βαραββᾶν·)
 그런데 바라바는 혁명가(강도)였습니다(ἦν δὲ ὁ Βαραββᾶς ληστή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8-3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언급하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나?”라고 묻고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같이 묻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유월절에 너희에게 한 명을 석방하도록 하는 관례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나?”라고 묻고는 대답을 듣지 않은 것을 보면 빌라도는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귀찮은 문제를 지금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이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혼잣말을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잣말이라도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던져 보아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얻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격을 얻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진리가 무엇이나?”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은 적이 있나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했으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놓아주려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잡아 온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풀어 줄 수는 없으므로 일종의 제안을 합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 들일 것이라 생각했을 테지요. 마가복음은 이 순간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전례대로 죄인 한 사람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막15:8).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지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상황을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¹⁵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¹⁶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¹⁷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¹⁸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으라”(마 27:15-18).

요한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라고 하는 당대의 악명 높은 사람을 제시함으로써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 달라고 할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며,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은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으라”라고 단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혼내주려고 했다면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 23장 4절~16절은 이 부분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⁵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⁶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⁷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⁸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⁹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¹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¹¹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¹²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 서로 친구가 되니라¹³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¹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¹⁵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¹⁶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눅 23:4-16).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심판받았으나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전혀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시기에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헤롯왕과 로마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무죄 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사형 이외에 다른 것은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정 그렇게 원하면 그냥 때려서 풀어 줄 생각이었습니다(눅 23:16). 그러나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40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대신 당대의 강도(혁명가)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이지요. 그는 민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고: 눅23:25). 여기서 ‘민란’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타시스’(στάσις)는 민중 봉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민중 봉기라 함은 로마 제국을 대상으로 독립 운동을 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유대 독립을 저지하던 로마의 협조자를 죽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 그는 당연히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특사로 바라바를 내어 놓고 그 바라바가 받은 사형 언도를 예수님께 돌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특사는 빌라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결정할 문제였습니다. 그런 관례에 의해 결국 예수님은 바라바에게 떨어진 그 사형 언도를 대신 자기가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월절 새벽에 잡혀오지 않았다면 바라바가 살아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과 도대체 그 바라바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날 예수님이 잡혀오지 않았다면 바라바는 당연히 죽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각각 왼쪽과 오른쪽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과 함께 바라바는 그날 사형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행악자들 중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그 자리는 바라바의 자리였던 것이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바라바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이 잡혀 오신 거지요.

또 다른 질문은 바라바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바라바 (Βαραββᾱς)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있고 또 그 아버지의 아들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비로소 부를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지요. 바라바를 위해 다른 바라바가 죽으신 겁니다. 말 아들인 예수님이 수많은 바라바들을 얻고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는 바로 당신이 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애쓰다 결국은 죽음에 처하게 된 그 바라바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죽을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다고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도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도 헛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바라바이고, 예수님과 바라바 중 누구를 풀어 주어야 하나고 묻는다면 당신은 속으로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염치없지만 제발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바라바였는데 마침 예수님이 잡혀 오셔서 내가 질 그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갚지 못할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빛 말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어떤 고소거리도 찾지 못하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19:1~7)

1.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4.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5.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7. 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러자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Τότε οὖν ἔλαβεν ὁ Πιλάτος τὸν Ἰησοῦν καὶ ἐμαστίγωσεν.)
- (2절) 그리고 병사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짜 만들었습니다
(καὶ οἱ στρατιῶται πλέξαντες στέφανον ἐξ ἀκανθῶν)
그들이 그것을 거의 머리위에 얹었습니다 (ἐπέθηκαν αὐτοῦ τῇ κεφαλῇ)
자색옷을 [그에게] 둘렀습니다 (καὶ ἱμάτιον πορφυροῦν περιέβαλον αὐτὸν)
- (3절)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καὶ ἤρχοντο πρὸς αὐτὸν καὶ ἔλεγον·)
만세! 유대인의왕이다 (χαῖρε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그리고 그에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καὶ ἐδίδοσαν αὐτῷ ροαίσματα.)
- (4절) 그리고 빌라도가 밖으로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ἐξῆλθεν πάλιν ἔξω ὁ Πιλάτος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왔다 (ἴδε ἄγω ὑμῖν αὐτὸν ἔξω·)
이는 내가 그에게서 어떤 고소거리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ἵνα γνῶτε ὅτι οὐδεμίαν αἰτίαν εὕρισκω ἐν αὐτῷ.)
- (5절) 그러자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ἐξῆλθ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ἔξω·)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채 (φορῶν τὸν ἀκάνθινον στέφανον καὶ τὸ πορφυροῦν ἱμάτιον·)
그[빌라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보라 이 사람이다 (ἰδοὺ ὁ ἄνθρωπος·)
- (6절)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 수하의 관리들이 그를 보았을 때 (Ὅτε οὖν εἶδον αὐτὸ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ὑπηρέται)
말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ἐκραύγασαν λέγοντες·)

십자가형에 처하라! 십자가형에 처하라 (σταύρωσον σταύρωσον.)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Πιλάτος.)

당신들이 그를 받으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으라 (λάβετε αὐτὸν ὑμεῖς καὶ σταυρώσατε.)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고소거리를 찾지 못했다 (ἐγὼ γὰρ οὐχ εὕρισκω ἐν αὐτῷ αἰτίαν.)

(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οἱ Ἰουδαῖοι.)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ἡμεῖς νόμον ἔχομεν)

그리고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형당해야 합니다 (καὶ κατὰ τὸν νόμον ὀφείλει ἀποθανεῖν.)

왜냐하면 그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υἱὸν θεοῦ ἑαυτὸν ἐποίησε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계속해서 외치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사실 뒤이은 기록을 보면 빌라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심하게 다루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할 거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문하고 괴롭힌 후에 그냥 놓아줄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계획은 여지없이 무산됩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만 안겨 주었을 뿐입니다.

23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은 빌라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수하에 있는 병사들은 가시를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얹고,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한껏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은 왕관을 대신하였고, 그들이 만든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의복을 대신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좀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20절을 읽겠습니다.

“¹⁶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¹⁷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¹⁸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¹⁹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막 15:16-19).

이 광경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희화화하여 왕에 대한 예우인 척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하기 위해 이런 퍼포먼스를 했지만 그것을 통해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대표해서 죽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대표하여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을 읽으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고소거리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온 이후 빌라도는 세 번에 걸쳐 유대인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18:29, 38, 그리고 19:4).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나간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

유를 알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자신이 취조를 한 결과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기에 유월절도 되었으니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으며, 세 번째는 그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고소거리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갔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을 설득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서 죽일 빌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인공이 빌라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놋뿔이 장대 높이 달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 위에 달리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런 사형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도 없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너무 완벽하게 자신의 죄를 위장해서가 아니라 이세상의 어떤 법에도 저촉됨 없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흉악범이 되어야 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알리가 없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노력하다 끝내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 이 세상의 지배자인 로마 제국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고소거리도 찾지 못했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없으신 예수님은 결국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죄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말로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막연한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믿음만큼 신앙생활도 막연하고 다분히 종교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늘 두렵고 혼내는 권선징악의 대표적 존재로 인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죽음의 능력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 보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넘어질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중심을 잡고 서로 실례했다고 말을 하고 아무일 없던 것처럼 자신이 가던 길을 갑니다. 또 한 사람은 길을 가는데 그만 한눈을 팔다가 지나가는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다친 곳도 없지만 약간의 충격으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내 괜찮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시속 20마일 정도로 서행하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치었습니다. 아스팔트에 넘어졌고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스를 풀고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레미콘 트럭이 언덕으로부터 시속 60마일 이상으로 달려와 길을 걷고 있는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트럭에 치였고 수십 미터를 날아가 건물 벽에 부딪히고는 떨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설령 살아났다고 해도 정상인으로 돌아오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신 거지요. 그 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저 어깨를 부딪히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자전거에 치어 넘어진 정도일까요? 아니면 차에 치어 수개월 고생하는 정도의 충격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사람처럼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리고 아무런 죄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사고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어나 레미콘 운전사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무용담처럼 그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사기꾼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 그런 사고를 경험한 게 아니니까요. 진짜로 경험했다면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가 만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정욕과 욕심의 근원인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긴가민가 하다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왜 죄없는 그가 죽었는지, 아니 왜 그가 죄없이 죽으셔야 했는지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어떤 고소거리도 찾지 못하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19:1~7)

1.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4.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5.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7. 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러자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Τότε οὖν ἔλαβεν ὁ Πιλάτος τὸν Ἰησοῦν καὶ ἐμαστίγωσεν.)
- (2절) 그리고 병사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짜 만들었습니다 (καὶ οἱ στρατιῶται πλέξαντες στέφανον ἐξ ἀκανθῶν)
그들이 그것을 거의 머리위에 얹었습니다 (ἐπέθηκαν αὐτοῦ τῇ κεφαλῇ)
자색옷을 [그에게] 둘렀습니다 (καὶ ἱμάτιον πορφυροῦν περιέβαλον αὐτὸν)
- (3절)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καὶ ἤρχοντο πρὸς αὐτὸν καὶ ἔλεγον·)
만세! 유대인의 왕이다 (χαῖρε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그리고 그에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καὶ ἐδίδοσαν αὐτῷ ροαίσματα.)
- (4절) 그리고 빌라도가 밖으로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ἐξῆλθεν πάλιν ἔξω ὁ Πιλάτος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왔다 (ἴδε ἄγω ὑμῖν αὐτὸν ἔξω·)
이는 내가 그에게서 어떤 고소거리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ἵνα γνῶτε ὅτι οὐδεμίαν αἰτίαν εὕρισκω ἐν αὐτῷ·)
- (5절) 그러자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ἐξῆλθ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ἔξω·)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 (φορῶν τὸν ἀκάνθινον στέφανον καὶ τὸ πορφυροῦν ἱμάτιον·)
그[빌라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보라 이 사람이다 (ἰδοὺ ὁ ἄνθρωπος·)
- (6절)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 수하의 관리들이 그를 보았을 때 (Ὅτε οὖν εἶδον αὐτὸ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ὑπηρέται)
말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ἐκραύγασαν λέγοντες·)

- 십자가형에 처하라! 십자가형에 처하라 (σταύρωσον σταύρωσον.)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Πιλάτος.)
 당신들이 그를 받으라 (데리고 가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으라 (λάβετε αὐτὸν ὑμεῖς καὶ σταυρώσατε.)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고소거리를 찾지 못했다 (ἐγὼ γὰρ οὐχ εὕρισκω ἐν αὐτῷ αἰτίαν.)
 (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οἱ Ἰουδαῖοι.)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ἡμεῖς νόμον ἔχομεν)
 그리고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형당해야 합니다 (καὶ κατὰ τὸν νόμον ὀφείλει ἀποθανεῖν.)
 왜냐하면 그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υἱὸν θεοῦ ἑαυτὸν ἐποίησεν.)

하나님의 말씀이해하기

5절을 읽으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고소거리도 찾지 못했다고 말한 후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 면류관을 쓰고 계셨고, 자색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빌라도의 이 선언은 앞부분과 이어 들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선언한다. 이 사람을 주목하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무죄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기 때문입니다. 조작을 해낼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빌라도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무죄 선언은 당시 빌라도 관저 앞에 모여 있던 유대인들만을 향한 선언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언이고 나아가 오늘날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를 향한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죄없으신 분이 그렇게 당하셨구나! 왜 그랬을까?”

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소리를 질러댁니다. “십자가형에 처하라! 십자가형에 처하라!”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할 권한도 없고, 또한 처형 방법까지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가장 가혹한 사형 방법으로 알려진,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 운동을 하다가 잡힌 수피들에게나 내리는 형인 십자가 형에 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종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적하여 독립 운동을 하여 자신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수피로 몰고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초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오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수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택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은 이미 그들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일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 예:애굽왕 바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까지 다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제 생각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하수인들은 그 시간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빌라도는 빌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고난 같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구원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6절 하반절을 읽으십시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그에게서 고소거리를 찾지 못했다”라고 재차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입으로 예수님의 유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무죄임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말은 ‘고소할 거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모를까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하소연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만한 빌미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도저히 찾아 낼 수 없었던 것이지요.

7절을 읽으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없음을 강변하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형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으며,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죄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는 로마법을 어긴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개개 식민지의 사회법, 시민법은 이미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종교 경전을 근거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는 유대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굳이 로마인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래서 억압받는 대다수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지위를 위협하는 일이 된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백성들 사이에 구세주로서 인정받고 입지를 굳힌 예수님을 자신들의 힘만으로 처리하려면 너무도 큰 위협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그 노력의 이면에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강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 2:22-24).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자기 목숨을 그들에게 내어 주셔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꼼꼼이 묵상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진정한 권세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19:8-15)

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0.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줄 알지 못하느냐
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14.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원문해석하기

- (8절)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Ὅτε οὖν ἤκουσεν ὁ Πιλάτος τοῦτον τὸν λόγον,) 그는 더더욱 두려워했습니다 (μᾶλλον ἐφοβήθη.)
- (9절) 그리고 그가 그의 관저로 다시 들어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καὶ εἰσῆλθεν εἰς τὸ πραιτώριον πάλιν καὶ λέγει τῷ Ἰησοῦ·) 당신이 어디로부터 있느냐? (πόθεν εἶσύ;)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ἀπόκρισιν οὐκ ἔδωκεν αὐτῷ.)
- (10절)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ῷ ὁ Πιλάτος·)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느냐? (ἐμοὶ οὐ λαλεῖς;) 내가 당신을 풀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십자가형에 처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οὐκ οἶδας ὅτι ἐξουσίαν ἔχω ἀπολύσαι σε καὶ ἐξουσίαν ἔχω σταυρῶσαι σε;)
- (11절)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당신은 나에게 대해 어떤 한 권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οὐκ εἶχες ἐξουσίαν κατ' ἐμοῦ οὐδεμίαν) 만약 위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εἰ μὴ ἦν δεδομένον σοι ἄνωθεν·)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가 더 큰 죄를 갖고 있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ὁ παραδούς μέ σοι μείζονα ἁμαρτίαν ἔχει)
- (12절) 그로부터 빌라도가 그들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ἐκ τούτου ὁ Πιλάτος ἐζήτει ἀπολύσαι αὐτόν·)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여 외쳤습니다 (οἱ δὲ Ἰουδαῖοι ἐκραύγασαν λέγοντες·) 만약 당신이 이 사람들 풀어 준다면 (ἐὰν τοῦτον ἀπολύσῃς;)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οὐκ εἶ φίλος τοῦ Καίσαρος;)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모든 사람은 카이사르에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 (*πᾶς ὁ βασιλέα ἑαυτὸν ποιῶν ἀντιλέγει τῷ Καίσαρι.*)
- (13절)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들은 후 (*ὁ οὖν Πιλάτος ἀκούσας τῶν λόγων τούτων*)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ἦγαγεν ἔξω τὸν Ἰησοῦν*)
 그리고 ‘박석’ (히브리어로는 갑바다)이라 불리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καὶ ἐκάθισεν ἐπὶ βήματος εἰς τόπον λεγόμενον λιθόστρωτον, Ἑβραϊστί δὲ Γαββαθα.*)
- (14절) 유월절의 준비일이었습니다 (*ἦν δὲ παρασκευὴ τοῦ πάσχα,*)
 시간은 육시였습니다 (*ὥρα ἦν ὡς ἕκτη.*)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보라 당신들의 왕이다 (*ἴδε ὁ βασιλεὺς ὑμῶν.*)
- (15절) 그러자 그들이 외쳤습니다 (*ἐκραύγασαν οὖν ἐκεῖνοι:*)
 들어 올리라 들어 올리라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라 (*ἄρον ἄρον, σταύρωσον αὐτόν.*)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Πιλάτος:*)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형에 처하라? (*τὸν βασιλέα ὑμῶν σταυρώσω;*)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카이사르 외에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οὐκ ἔχομεν βασιλέα εἰ μὴ Καίσαρ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8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후 빌라도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과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빌라도에게 잡혀 왔을 때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왕이라는 말이나?”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소리를 듣습니다”(18:37).

빌라도의 심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기한 핵심 단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증거했고,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시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나?”라고 되물었습니다 (18:38).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통 인간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경외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통 자신을 휘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힌트가 될만한 단서를 유대인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지요.

9절을 읽으십시오. 그가 관저로 다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어디로부터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그가 느낀 두려움, 경외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을 정상인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한 식민지의 총독 정도라면 그런 말을 하는 자를 호락호락 믿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온데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취조하면 할수록 빌라도는 예수님이 예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의 속마음이 이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비록 빌라도 개인의 입으로 말했지만 사실 모든 인류가 반드시 던져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변증서입니다.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오셨는가?에 대한 변증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또한 진리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진리란 이 세상 논리에서 배우는 ‘참’과 ‘거짓’이라는 명제를 규명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둥글다’라는 말은 ‘참’입니다. 적어도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는 말이지요. 그 전에는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말이 참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명제는 과학적 발견이나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아닙니다. 또한 한자의 의미대로 ‘참된 이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늘의 것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 계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또는 단 한 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 오신 분이니까 말이지요.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두 질문은 요한복음의 모든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그 진리’이심을 알고 믿고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신이 이해하는 진리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0-1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풀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가 당신을 십자가형에 처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만약 위로부터 당신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에 대하여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은 권세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권세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이 땅의 권세를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는 이 세상 누구도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권세는 위로부터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왕권 신수설(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재판을 끌고가고 있는 자는 빌라도 자신이 아니라 빌라도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지금 빌라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이 이런 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